

살아있는 전설, 세라믹 마스터 웨인 히비

Living legend Ceramics Master: Wayne Higby

웨인 히비는 미국 현대도예가의 전설이라 할 수 있다. 그는 45년 이상 대학에서 도자예술을 가르치다가 2015년 은퇴 후 알프레드 대학교 도자 박물관의 감독이자 수석 큐레이터로 활동했으며, 라쿠 번조의 대가로 알려져 있다. 필자는 2014년 여름 알프레드 대학의 '알프레드 썸머 워크숍'에 참가했다. 당시 웨인은 은퇴를 앞두고 있었고, 프로그램에서 그가 도자 예술가로서 삶을 보는 방법과 교수로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웨인과 그의 작품을 소개한다. 필자는 지난 20년 동안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학교와 학회, 행사 등에서 만난 유명 도예가들로부터 웨인 히비의 명성을 들어왔다. 그는 알프레드 대학에서 스승과 멘토로서 학생들의 예술적 역량을 이끌어주며 그들이 아티스트로서의 길을 시작하는 데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여름 워크숍을 통해 그가 학생들과 어떻게 교류 Interact 하고 수업을 진행하는지를 가까이서 볼 수 있었다. 2주간 열린 라쿠 번조 워크숍에는 미국 전역과 한국, 캐나다 등지에서 온 도예작가를 비롯해 학부와 대학원 도예 전공생들, 학교 관계자들이 그의 시연을 참관했다. 매일 아침마다 웨인은 수필이나 시 등을 낭독하며 수업을 시작했고 강연, 전시에 얽힌 에피소드를 재미있게 풀어갔다. 첫 번째 주간은 참가자들이 작품 제작에 몰두하는

분위기를 만들며 피드백을 주었고, 두 번째 주간부터는 초벌 번조와 함께 글레이징, 라쿠 번조 등을 지도했다. 그리고 모든 참가자들이 충분히 경험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지원했다. 또한 웨인과 그의 조교들, 참여작가들의 아티스트 토크를 통해 자신이 어떤 작업을 하는지 포트폴리오를 발표했다. 서로의 작업 세계를 이해할 수 있었고 질의 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한국 학생들과 참가자들이 함께 식사와 게임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웨인은 웅장한 산맥으로 둘러싸인 콜로라도에서 판사 집안의 외동 아들로 자랐다. 대부분의 시간을 자연에서 보내며 예술가의 삶을 꿈꿨다고 한다. 홀로 자란 그는 마음 속에 무언가에 대한 그리움이 마음 속에 있었고, 이를 거대한 자연의 예술적 상상력으로 풀어 나갔다.

그는 콜로라도 대학 University of Colorado at Boulder 에서 미술 교육으로 학부과정을 마치고 미시간 대학 University of Michigan 대학원에서 세라믹 아트 과정으로 석사 MFA 학위를 받은 후 알프레드 대학에서 47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는 학부과정에서 세계적인 예술가로 알려진 베티 우드만 Betty Woodman, 폴 솔드너 Paul Soldner, 마누엘 네리 Manuel Neri, 마리아 마르티네즈 Maria Martinez 등과 작업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도자벽화 작품 'Skywell Falls', 2019 | 미국 펜실베이니아 레딩에 위치한 뉴 밀러빌딩

“나는 나와 같은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과의 만남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했고, 더욱 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콜로라도Boulder Recreation Department에서 관리하는 개조된 소방서Fire House에서 베티 우드맨과 함께 수업을 들었습니다. 베티는 폴 솔드너Paul Soldner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피터 볼커스Peter Voulkos, 존 메이슨 John Mason 및 헨리 다카모토Henry Takamoto의 추상도자 작업을 처음 소개한 마누엘 네리Manual Neri와 함께 작업했습니다. 그들과의 작업은 내게 다가온 신의 계시같았습니다. 나는 이 아티스트 멘토들을 통해 영감을 받고 작업에 헌신했습니다. 당시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본능적인 감각과 연결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손과 연결된 지성, 정서적 힘, 아무런 저항없이 받아 들인 전통과의 대결에 대한 감각이었습니다. 공예CRAFT가 있었고 순수 예술 ART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 전국적으로 새로운 제작자들의 커뮤니티가 싹 트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소위 '미국 공예 운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속한 예술가들은 흙이라는 재료를 그들의 숙련된 손과 마음으로 시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것들로 바꾸는 과정을 통해 확장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나는 아티스트들에 대한 투자Investment와 지역 사람들의 삶에 인간애에 대한 윤리가 위태로운 상태에 빠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었고 또한 무언가를 대변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존경하

는 아티스트들에게 인정도 받고 싶었습니다. 나도 작품을 통해서 무언가 할 말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깊이 느꼈었습니다. 1969년에 열렸던 <Objects USA>는 새로운 움직임을 처음으로 선보인 중요한 전시회였습니다. 나는 전시회에 참여한 작가들 중 가장 어린 아티스트였습니다.”

“첫 전시로부터 47년이 지났습니다. 환상 속의 먼 길처럼 보였던 그 여정은 이제 끝자락에 있습니다. 각자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어떤 것도 필연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유한 개인이 차이를 만듭니다. 만남, 우정, 경쟁, 꿈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웨인은 아티스트로서 비교적 이른 시기인 20대 초반에 훌륭한 도예가·조각가들과 교류할 수 있었고 멘토들의 작업에 대한 열정과 생각은 귀감이 되었다. 그는 작가로서의 세상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을 그의 삶에서 몸소 경험하며 깨우쳐 갔던 기나긴 여정을 고백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그가 2020년에 필자에게 보내온 코멘트를 전한다.

“‘미국의 풍경’은 내 상상력의 방아쇠를 당기는 시작점입니다. 작품에서 풍경은 특별한 장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 공간과 은유된 공간은 둘 다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응집되고 일관성있는 공간, 즉 때로는 유한한, 때로는 무한한 친밀하지만 압도적인 터치의 침묵이 지

배하는 공간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언제나 노력합니다. 이러한 공간은 물리적, 입체적인 구조와 환상을 리드미컬하게 재연결하며 보여줍니다. 내 작품은 자연의 풍경 landscape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풍경 mindscape'입니다. 지구, 하늘, 시간, 빛, 공간 등 내 작품은 마음과 물질 사이의 관계에 대한 명상입니다. 단순히 풍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오래전에 보내온 '회상'이란 자서전적인 글에는 오랜 세월동안 추구한 아티스트로서의 삶이 마치 구도자가 참나를 찾아서 길을 나선 것처럼 느낀 그의 경험을 서술했다. 그 글에서 발췌한 일부를 월간 도예 독자들과 나눈다.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행해지는 일반적인 행동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미지를 거울을 통해 봅니다. 그것은 겉보기에는 구체적이지만 환상에 불과한 진실의 투영입니다. 거울 속의 자신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상하게도 설득력있는 자의식이 생기죠. 거울에 비추어진 모습은 무엇을 드러내나요? 거울 속에 맺혀진 이미지는 진정한 자아를 표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삶에 대한 성찰은 여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정지한 삶의 모습은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드러냅니다. 이야기의 이면을 보거나,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제 작업을 이끈 핵심적인 질문일 겁니다. 내게 왜 항상 풍경에 근거한 작업을 했는가 물어볼지도 모를



웨인 히비Wayne Higby

“지구, 하늘, 시간, 빛, 공간:
내 작품은 마음과 물질
사이의 관계에 대한 명상입니다.
단순히 풍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Wayne Higby 「Landscape」 series. 웨인 히비의 작품은 하늘과 빛, 시간과 공간, 물질 등 풍경에 대한 사유를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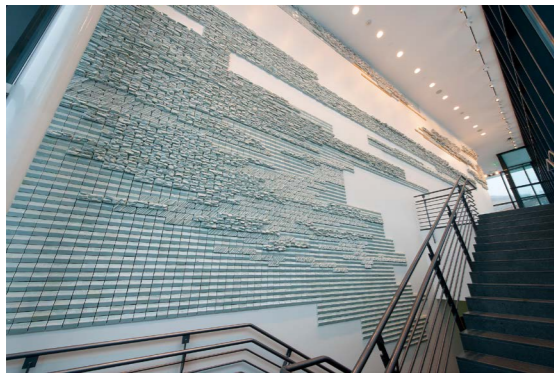


니다. 글썬요, 저는 확실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작업의 시작점입니다.” 에머슨의 말로 내 생각을 전합니다. '자연의 모든 사실은 지성의 명사이며 영원한 언어의 문법을 만듭니다.'

“곰브리치E. H. Gombrich는 “모든 보는 것은 안다 Knowing라는 것의 한 형태”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는 '만들기란 생각과 앎의 한 형태'라고 덧붙입니다. 보고, 만들고, 생각하고, 안다는 것은 끊임없이 떠오르는 의심과 염려의 바다를 향해하는 수단으로서 나를 인도하고 있고 나 자신의 발견과 자기화의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풍경을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일관성 있는 내적 공명의 조화로움을 둘러싼 의미로 여깁니다.”



「Earth Cloud」 2006, 2012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조명주의자’라고 불리는 미국 예술가들 Fritz Lane, John Kensett 및 Martin Heade의 작품을 존경했습니다. 이들은 자연에 초자연적인 눈으로 접근했고 정확한 묘사보다는 의식 표현에 더욱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조명주의적 풍경은 개념 미술의 한 형태이며, 풍경화를 보이는 그대로 그리지 않고 마음의 풍경을 그리는 동양 산수화의 정신 세계를 반영합니다. 나는 내 직관적인 신념을 통해 미국과 동양 철학의 본질적인 측면과 그 이면에 존재하는 예술적 의도를 공유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때때로, 미국 풍경에 대한 나의 관심은 “현대” 예술이란 큐레이터의 틀 안에서 시대 착오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내 자신의 예술적 신념을 고집스럽게 고수해 왔고, 그러한 확신은 공예에 대한 관심과 독창적인 기술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인으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온 유산이기도 합니다. 공예는 또한 주의를 집중해야 하는 예술입니다. 최선을 다해 관찰하고, 기술과 주의를 기울여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예, 무엇을 만든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이고 아는 Knowing 것의 한 방법입니다.”

“청소년 시절 나는 페인트, 종이, 막대기, 점토와 소통했고, 그 결과 자아 실현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땅에서 비롯된 재료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키웠습니다. 어린 시절 내내 나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눈에 고치에 갇혀 있었습니다. 고립된 내 마음과 물질의 세계였습니다. 혼자 자란 나에게는 상상을 위한 침묵과 공간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첫 기억은 밝은 햇빛에 반짝이는 콜로라도 산맥의 분홍색 화강암 먼지와, 비가 내린 후의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의 냄새입니다. 갈망은 항상 나를 사로 잡았습니다. 누군가와 연결이나 접촉, 어떤 것에 대한 지식, 어떤 장소나 게시 등에 대한 느낌일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세상과의 접촉은 경이로움을 부른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갈망은 무언가를 만들으로써 해소됐고, 흉과의 접촉을 통해 감정들을 가라 앉히며 자신에 대한 미를 구축해 왔습니다.”

“1963년에 학교를 떠나 온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내 인생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인도에서 나의 존재에 대한 자기 중심적인 확신이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때까지 가슴을 요동치게 만드는 생명력을 목격한 적이 없었습니다. 크레타의 헤라클리온 박물관에서는 미노아 도자기를 발견했습니다. 이 경험은 지금까지 나의 도예에 대한 열정의 기초가 됩니다. 학교로 돌아온 나는 인생을 소중히 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기회에 대해서는 무엇이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철학적 세계와 삶에 대한 개인적인 신념 체계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항상 재료의 본성이 나와 접촉했을 때 생기는 자연스런 가르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나의 생각과 개념을 목적지로 인도하는 재료와 그에 대한 과정에 순응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알프레드 대학 밀러 퍼포밍 아트 빌딩 예술극장 로비의 「지구 구름 Earth Cloud」을 보자. 이 설치 작품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그의 조수들과 제작한 팀워크의 산물로, 구름을 주제로한 작품이다. 세라믹 오브제 설치의 여든에 가까운 그의 생을 통해 축적된 삶과 자연, 환경에 대한 정교한 관점을 담고 있다.

「지구 구름」은 다양한 크기의 포슬린 피스들이 빌딩 로비와 계단 인테리어에 맞게 여러 구획으로 나뉘어 벽면에 설치됐다. 특히 퍼포밍 아트 빌딩은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 낮에는 일조량이 풍부히 들어고 밤에는 조명들이

작품과 공간을 구석구석 비춘다. 조각의 선, 형태, 색상, 질감 등은 빛을 받아 그 진가를 발산한다. 그는 이 작품을 설치하기 위해 그리드 방식 Grid Method을 사용했다. 벽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쇠 막대와 걸이 등을 만들었고 개별 조각들도 나무 받침대 위에서 흙의 수축율을 감안해 만들었다. 무시유로 질감을 강조한 조각편, 암호같은 모양을 새긴 피스들, 또는 얇은 금을 입힌 질감으로 운동감을 뽐어내는 작은 피스들이 어우러지도록 설치되었다. 웨인 히비는 백자의 메카인 중국 경덕진 Jingdezhen에서 레지던시 경험을 바탕으로, 포슬린에 대한 지식과 숨씨가 탁월하다. 관객 들은 고온 환원번조으로 구워 낸 자기의 푸른 빛에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오로지 도자기만이 나타낼 수 있는 작품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매체에 대한 탁월한 이해를 보여준다. 몇몇 피스는 자기 흙이 가마의 높은 온도를 거쳐 환원에서 적절하게 소성되었을 때 이르는 반투명한 상태, 즉 순수한 흰색을 띄고 있다. 환원 가스 가마에서 구운 청자 유약을 입힌 도자기에서는 푸른 빛의 차가운 백색을 볼 수 있었다.

웨인 히비와 그의 작품을 보면 재료를 이해하고 기술을 숙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면서, 마스터의 경지에 이르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것은 아마 평생이 걸려도 결코 끝나지 않는 일일 수도 있다. 📷



미국 도예가 웨인 히비 Wayne Higby는 콜로라도 대학에서 학부를, 미시간 대학 대학원에서 세라믹 아트 석사학위를 받고 알프레드 대학에서 47년 동안 후학을 양성해왔다.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영국 V&A, 일본 도쿄 국립 미술관 등 세계 유수의 미술관에서 그의 작품을 영구 소장중이며, 미국 국립도자 예술 교육위원회 NCECA의 명예 회원, 헤이스택 마운틴 공예학교의 평생 재단 이사, 국제도자협의회 IAC의 명예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중국 도자 명사 경덕진의 최초 외국인 명예시민이며, 중국 상하이 예술대학의 명예교수이다. 애리조나주립대학 미술관과 워싱턴 D.C.의 스미스소니언 아메리칸 아트 뮤지엄에서 회고전을 발표했다.

필자 전신연은 미국 매릴랜드 타운스 대학, 오를라호마에 위치한 노스 이스턴 주립 대학 미술 대학에서 도자 예술과 3D Studio Art 그리고 미술교육 등을 가르쳤다. 현재는 샌츠크렐 오레곤 커뮤니티 대학에서 도예와 인체 드로잉을 가르치고 있다. 그의 웹사이트는 www.shinyeon.com 이다.